

# 잡힐 듯 잡히지 않는 'KIA 4강'



3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와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8회말 1루 주자 NC 박민우가 KIA 유격수 김민우의 태그를 피해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NC전 6회까지 리드 하기도 4-5 역전패

불펜 불안·뒷심 부족...4위와 거리 못좁혀



뒷심 싸움에서 또 밀렸다. KIA 타이거즈가 30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NC 다이노스의 경기에서 4-5 역전패를 당했다. 3회 이대형의 2타점 적시타로 리드를 잡았지만 7회 NC 모창민에게 역전타를 맞으며 두 경기 연속 역전패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올 시즌 NC전 상대

전적은 3승8패가 됐다.

진흥고 출신의 나성범과 광주일고 출신의 모창민이 각각 동점타와 결승타를 때려내며 고항팀을 울렸다. 두 선수는 홈런도 하나씩 추가하며 4타점을 합작했다.

차일목의 볼넷으로 출발한 3회, 강한울의 땅볼로 선행주자가 아웃됐지만 김주찬의 안타에 이어 패스트볼이 나오면서 1사 2·3루가 됐다. 이대형의 중전안타가 이어지면서 KIA가 이재학을 상대로 2점을 먼저 뽑아냈다.

4회말 임준섭이 나성범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NC의 추격이 시작됐지만 5회초 무사 1루에서 김주찬이 좌측 담장 넘어가는 투런포를 쏘아올리며 4-1을 만들었다.

5회 임준섭이 역전 위기를 넘기면서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에서 내려왔다.

선두타자 박민우를 안타로 내보낸 임준섭이 도루로 2루를 허용했다. 김중호의 내야안타와 이종욱의 땅볼로 박민우가 홈까지 밟으면서 4-2가 됐다. 헛스윙 삼진으로 테이즈를 잡아낸 임준섭이 나성범에게 중전안타를 맞으며 2사 1·3루의 위기에 몰렸지만 노련한 이호준을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승리투수 요건을 갖추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하지만 불펜 싸움에서 KIA가 판정패를 당했다. 6회 임준섭에 이어 마운드에 오른 김태영이 모창민에게 솔로포를 맞으면서 4-3으로 점수가 좁혀졌다.

7회에는 심동섭이 몸에 맞는 볼로 주자를 내보낸 뒤 견제 실책을 범하면서 1사 2루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어 심동섭이 '호랑이 사냥꾼' 나성범에게 1타점 2루타를 맞으며 4-4에서 마운드를 내려왔다. 베테랑 최영필이 위기 진화에 나섰다. 모창민의 역전 안타가 나오면서 4-5로 승부가 뒤집혔다.

KIA가 8·9회 승부를 뒤집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지만 화력이 부족했다. 8회 1사 1·2루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KIA는 9회 선두타자 김민우가 볼넷으로 출루하며 마지막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김주찬의 병살타와 이대형의 삼진이 나오면서 2연패를 기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류현진, 주말 13승 사냥

8월 2일 시카고 컵스전 선반

미국 프로야구 내셔널리그 다승왕 경쟁에 뛰어든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카고 컵스를 상대로 시즌 13승에 도전한다.

MLB닷컴은 2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컵스와 경기 다저스의 선발을 류현진으로 예고했다.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경쟁팀 샌프란시스코와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선두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한 다저스는 고배를 더 단단히 쥐었다. 29일 휴식일이 생기자 전날 기막판부터 부진한 댄 하켄을 선발 로테이션에서 한 차례 빼고, 조시 벡트·잭 그레인키·클레이턴 커쇼·류현진의 등판 일정을 하루씩 당겼다.

28일 샌프란시스코와 원정경기에서 6이닝 6피안타 3실점으로 시즌 12승(5패)째를 챙긴 류현진은 4일 휴식 후 다시 마운드에 오른다. 5일 휴식 후 등판을 선호하는 류현진이지만 이번 4일 휴식 후 등판은 체력적인 부담이 덜하다. 14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에서 전반기 마지막으로 등판한 류현진은 7일을 쉬고 22일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경기에 등판했고, 다시 5일을 쉬 후 샌프란시스코전에 나섰다. 체력을 충분히 비축한 상황이다. 더구나 상대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 최하위 컵스다. 컵스는 29일까지 팀 타율 0.238로 이 부문 메이저리그 전체(30개 팀) 29위에 머물러 있다. 규정 타석을 채운 선수 중 타율 3할 이상을 기록 중인 선수는 단 한 명도 없다. 컵스의 간판 타자는 29일 현재 타율 0.283·25홈런·58타점을 올린 앤서니 리조다.

류현진은 지난해 8월 3일 단 한 차례 컵스와 상대해 5.1이닝 동안 11안타를 내줬지만 2실점으로 막으며 승리를 챙겼다.

류현진은 전반기 마지막 경기(샌디에이고전)부터 샌프란시스코전까지 3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며 다승왕 경쟁에 뛰어 들었다. 1위 애덤 웨인라이트(13승·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격차는 불과 1승이다.

류현진은 커쇼, 그레인키 등과 함께 2위 그룹을 형성하며 웨인라이트를 압박하고 있다. 류현진에게 '다승왕 경쟁'은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 류현진이 4연승과 시즌 13승을 향해 마운드에 선다. /연합뉴스

## 한국 축구, 11월 중동 원정 평가전

아시안컵 대비...14일 요르단, 18일 이란과 대결

한국 축구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2패를 떠안긴 '난적' 이란과 2015 아시안컵에 대비한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30일 "11월 18일 이란 테헤란에서 이란 대표팀과 평가전을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팀은 9~10월에 각각 총 4차례 평가전을 국내에서 치른 뒤 중동 원정에 나서 11월 14일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 대표팀과 먼저 맞붙는다. 이후 이란 테헤란으로 이동해 11월 18일 이란 대표팀과 대결한다. 이란은 2014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 예선

에서 한국과 두 차례 맞붙어 모두 승리하며 태극전사에게 굴욕을 안겨준 팀이다. 이 때문에 한국은 월드컵 최종예선 A조에서 이란에 밀려 조 2위로 본선 무대를 밟았다.

역대 전적에서도 한국은 9승7무11패로 열세다. 지난해 6월 18일 울산문수구장에서 열린 브라질 월드컵 최종예선 8차전(한국 0-1패)에서는 이란의 사령탑인 카를로스 케이로스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벤치를 향해 '주먹감자'를 날리는 비신사적인 행위까지 펼쳐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한편, 이란 평가전까지 결정되면서 한국

이 올해 하반기에 치를 6차례 평가전 가운데 4개가 확정됐다.

9월 5일과 9일에 각각 베네수엘라, 우루과이와 평가전을 치르고, 11월 14일과 18에는 요르단, 이란과 차례로 맞붙는다.

다만 10월 평가전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 10월 10일 파라과이와의 평가전을 협의하고 있고, 10월 14일 상대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축구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11월 평가전은 내년 1월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만날 중동팀(오만·쿠웨이트)을 상대로 한 실전 연습의 의미여서 더욱 중요하다. 한국은 2015 아시안컵에서 개최국 호주를 비롯해 오만, 쿠웨이트와 A조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광주FC 김호남

챌린지 20R '베스트 11'



광주 공격의 '핵' 김호남이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김호남이 30일 한국프로축구 연맹이 발표한 K리그 챌린지 20라운드 베스트 11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김호남은 앞선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전반 32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5호골에 성공했다. 또 폭넓은 움직임까지 선보이며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김호남은 선정위원회로부터 "공격수임에도 적극적인 수비기담과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팀을 패배에서 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주는 이날 75%의 볼 점유율을 보였지만, 전반 40초 만에 득점에 성공한 뒤 수비 전술로 일관한 부천에 막히며 1-1 무승부에 그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